

경기도 구청사 벼룩시장 '경기기회마켓' 4월부터 매달 열린다

도, 구청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기회마켓' 매월 정례 개최

경기도는 4월부터 도청사 이전 후 위축된 구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작가·농부·소상공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사 벼룩시장(플리마켓) '경기기회마켓'을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경기기회마켓에는 국내 유명 벼룩시장(플리마켓)인 '문호리리마켓'과 '수원맘모여라 네이버 카페', 농협 경기지역본부 등이 함께한다.

우선 오는 4월 1일(10시~18시)부터 2일(10시~17시)까지 2일간 '문호리리마켓'이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총 50팀의 작가, 농부들이 참여하며 특히 지난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 역으로 출연해 유명해진 문호리리마켓 출신 작가 겸 배우 정은혜 씨가 자신의 그림을 판매할 예정이다.

문호리리마켓은 2014년 4월 양평 문호리에 정착한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문호리 강변에서 20여 개 점포로 시작해 현재는 300여 팀의 예술가, 100팀의 농부들이 수제(핸드메이드) 제품과 농산물 판매를 비롯해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수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벼룩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로 2021년 2월부터는 매월 개최되는 매일상회로 전환해 운영하고, 주말에는 울진 산불 피해 지역, 태백 탄광촌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호리리마켓의 철학과 경기도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구청사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맞닿아 '경기기회마켓'을 기획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4월 1일부터 2일은 문호리리마켓과 2023 경기도청 봄꽃축제 사전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코로나19로 4년간 중단됐던 경기도청 봄꽃축제가 사회적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을 주제로 개최된다.

또한 4월~6월, 9월~11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수원지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수원맘모여라의 중고마켓 '나플나플'과 농협 경기지역본부의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구청사 우선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구청사 잔디



▲ 지난해 10월 21일 김동연 지사가 구청사 잔디광장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플리마켓을 찾아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장에서 농협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하는 농산물직거래장터와 '수원맘 모여라' 주관 '나플나플'을 개최한 바 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은 "예술가와 농부들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문화 체험과 소비의 기회를,

주변 상권에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구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로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기회마켓'을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이번 행사로 주변 상권에 다시 훈풍이 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총파업! 대응 체계 구축 급식, 돌봄 등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해 전력

경북교육청은 오는 31일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의회의 총파업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총파업이 예고된 이후 경북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신속하게 상황실을 조직하고, 각 부서의 의견 수렴과 부교육감 주제 부서장 회의를 가지고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상황실 구성·운영 △단계별·기관별 대응 방안 △학교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취약분야 집중 대응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복무 및 임금 처리 등이다.

파업 기간 동안 상황실에서는 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 돌봄교실 등의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활동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급식소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파업 참여 규모를 고려해 식단 축소 또는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대체식(빵·우유 등) 제공 등을 학교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의 공백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5일 실시된 1차 총파업에 경북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664명(6.83%)이 파업에 참여해 147교(16.2%)가 대체 급식을 실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집중 대응하고, 교육활동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준비 살펴

오천그린광장 등 주요 행사장 방문객 편의·안전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해 박람회 개막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은 개막식 주요 행사가 펼쳐질 오천그린광장과 순천만국가정원에 새롭게 조성된 노을정원, 키즈가든, 국가정원식물원, 가든스테이,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전시연출 경연정원 등에서 방문객 편의와 안전에 중점을 뒀다.

오는 31일 오후 6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는 국내외 초청인사 1



만 명과 일반 관람객 약 2만 명 등 총 3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천그린광장은 본래 대규모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한 저류지다.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계절 잔디광

장과 함께 1.2km에 달하는 국내 최장 마로니에 길을 연출해 박람회장 주 무대로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순천만정원이 세계 정원문화의 성공적 롤모델로 자리매

김하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며 "2023년은 세계로 뚫는 전남 대도약 원년으로 삼은 만큼 순천만국가정원과 함께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힘차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세차례 예행연습을 통해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기부, 후원 및 입장권 사전 판매 등으로 8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정혜영/기자

서울시교육청, '챗GPT 시대의 AI 리터러시'교사 토론회 개최

토론회를 3월 29일, 3월 31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초등학교용)',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두 자료집 집필에 참여했던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의 특강에 이어 현장 교원이 토론회로 참여하며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 토론회는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주제로 3월 29일 15시 30분부터 줌 웹inars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울교육대학교 변순용 교수가 '챗GPT 시대의 AI 윤리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이어서 '챗GPT와 윤리교육', '교육과정 연계 AI 윤리교육 방안' 등에 대한 현장교사 토론회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토론회는 '인공지능 리터러

시교육'을 주제로 3월 31일 15시 30분부터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된다. 바비엔2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토론회에는 5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다. 고려대 김현철 교수가 '챗GPT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총신대 김수환 교수의 사회로 'AI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등에 대한 현장교사 토론회가 이루어진다.

조직인 서울시교육감은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및 현장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2023년 4월부터 안성시가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책임집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안성시민

지원내용 시내버스 요금 지원

이용방법

1. 농협에서 어르신 무상교통카드 신청
2. 카드 충전하여 사용
3. 분기별 현금 환급

안성시청교통정책과 031) 678.0754~0755

경북도의회, 일본 교과서 왜곡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8일(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 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관계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자국 중

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뒤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상 망언,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독도안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산 정책이주지의 현주소 면밀히 살펴

부산 정책이주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점... 현장 둘러보며 면밀히 검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위원장)·김태호·김형철·반선호·배영숙·성창용·황석철 의원은 3월 28일, 부산 민생현안 지역인 정책이주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역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부산 정책이주지 4개 지역(반여지구, 용호지구, 개금지구, 신평지구)을 방문했다.

부산의 정책이주지는 피란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철거민 및 무주택 난민 수용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사업(1955-1964년)을 추진하며 도시 내 불량주택 거주민을 시 외곽 및 타 지역

으로 이전시키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이들 정책이주지는 50년 이상된 노후 주거지이며 18개 지구 전체 건축물의 약 93.8%가 주거용도인 공동 및 단독주택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약 90.7%로 거주민의 안전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주거지 정비에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정책이주지 거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했으나, 구체적인 사업효과

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광명 위원장은 "정책이주지의 열악한 물리적 여건으로 지역은 더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정책이주지의 지역별 특색과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주거지가 더 이상 슬럼화되지 않도록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서 "부산시의회에서 정책이주지의 현주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제도 개선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23개 공공예식장 개방 크게 환영한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결혼식장 예약난을 겪고 있는 예비부부를 위해 23개 공공예식장(신규 19개소 포함)을 개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결혼식장 예약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제316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 공공예식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한 서울시의 화답으로 송도호 위원장은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예식장으로 사용될 공공시설은 시민 공모전 등을 통해서 결혼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예비부부들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으며, 이번에 신규 개방하는 19개소 외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 4개소를 포함하면 총 23개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대관료는 일반 예식장 대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운영된다. 19개소 중 서울시청 시민청, 광나루 장미원 등 3개소는 무료이며, 다른 곳도 2만 원

~50만 원대로 이용가능하다. 송도호 위원장은 "서울시 23개 공공예식장 확대 개방을 크게 환영하고, 이와 같은 서울시의 화답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사업이 지속되고, 우리나라 결혼문화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호 위원장은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개방되는 장소의 노후화된 시설 및 비품 개선에도 세심함을 기울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결혼식은 4월부터 올릴 수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상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예식 가능 일자도 각 장소별로 상이하다. (예비)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주거지 또는 생활권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결혼식 준비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서 1:1 맞춤형 상담과 플래너를 종합패키지로 지원해 결혼식 준비에 드는 시



간을 절약하고, 거품없고 품격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스텝(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은 얼마 정도인지, 결혼식 준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웨딩 콘셉트를 어떻게 실현할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상담 후 예비부부가 꿈꾸는 결혼식을 설계할 수 있다. 예비부부들은 패밀리룸을 누리집에서 예약 가능한 일정과 예식공간 등 정보를 확인하고 대표상담전화(4개)와 상세한 상담을 거쳐 예식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최경수/기자

규탄성명서

1.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일본 교과서에 내용을 왜곡 검정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260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천명한다.
3. 일본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시 시정하고 양국의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조철기 충남도의원 "충남아산FC 지원 규모 확대해야"

창단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립기반 마련위한 도비지원 무색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연구 프로젝트단인 충남아산FC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를 주장했다. 충남아산FC 창단과정에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충남아산FC 지원을 위한 운영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아산FC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5년간 매년 도비를 20억원씩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여가선용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충남도와 아산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팀이 창단되자마자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창단식 취소,

대회 축소 및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며 지난 3년간 구단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철기 의원은 "김태홍 지사는 지난 3월 홈 개막전에 참석해 명예구단주로 추대되면서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도비 지원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리그2 기존 10개 구단 중 충남아산FC의 총 예산이 가장 적고, 선수 연봉 또한 타 구단에 비해 3~4배가 적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도약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충남아산FC를 위해 잃어버린 3년을 보전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정근/기자

용인특례시의회, 2023년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실시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28일 신촌중학교 1학년 3반 27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를 방문해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시의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황재욱, 안지현, 박은선, 이상욱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답하며 생생한 의정활동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만난 의원들은 "학생들이 의회를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의회는

생소하고 어려운 곳이라 생각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재미있게 지방자치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구성 단체는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조혜영/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진행

수원특례시의회가 28일 의정집무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종철 의원과 배지환 의원을 위촉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서현일·정연태·정동수·최진구 세무사, 김연주 회계사로 총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2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의 마지막 과정인 만큼 전년도 예산 사용이 적법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 편집국장:최재은 | 부회장:박유석 | 임직원: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 님 연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기 방 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빌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일동안 서울둘레길 완주로 건강과 활력을 잡아보세요

“2023 러너블 트레일서울 157K, 서울둘레길 완주 100일 걷기 챌린지” 접수중

157km라고 하면 매우 힘든 여정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완주자가 6만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서울둘레길은 멋진 풍경이 가득한 특별하고 인기있는 코스이다. 올해는 봄을 맞아 건강과 활력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서울둘레길 완주를 도전해보면 어떨까?

서울특별시와 러너블(주)과 함께 “2023 러너블 트레일서울 157K, 서울둘레길 완주 100일 걷기 챌린지”를 공식 후원하여 봄바람 맞으며 걷기 좋은 계절, 시민들에게 건강할 걷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둘레길 완주 100일 걷기 챌린지’는 2023년 4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100일 동안 서울둘레길 전 구간을 완주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 22일부터 러너블 앱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을 한 바퀴 휘감는 8개 코스의 서울둘레길은 ‘서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몰랐다’는 수많은 참여 후기가 입 모아 말하는 것처럼 곳곳에 숨어있는 매력과 볼거리가 많은 길이다.

서울둘레길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의 둘레길로 총연장 156.5km, 8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길은 물론 마을길,

하천길 등 다양한 길로 이루어져 있어 다채로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둘레길 1코스(수락·불암산)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연결하는 코스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시작점에 서울둘레길 안내센터가 있어 코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코스(용마·아차산)는 서울둘레길 중 전망이 가장 뛰어난 코스로 역사·문화자원 풍부한 것이 특징이며, 3코스(고덕·일자산)는 숲길, 하천길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코스로 다양한 서울의 경관을 확인할 수 있고, 4코스(대모·우면산)는 산길이지만 경사가 완만하여 수월한 걷기가 가능하다.

5코스(관악·호암산)는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구간이나 서울의 산림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이며, 6코스(안양천·한강)는 전 구간이 평탄한 하천길로 계절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안양천과 한강을 만끽하는 길로 봄을 맞아 벚꽃길 걷기를 추천한다.

7코스(봉산·앵봉산)는 서울 주요 랜드마크인 월드컵공원을 지나는 구간으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8코스(북한·도봉산)는 북한산 둘레길과 겹치는 구간으로 한 번에 둘기보다 3~4회 나눠서 걷기 추천한다.

또한, 곳곳에 휴게시설과 북카페, 커피가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점은 서울둘레길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어느덧 3회를 맞은 ‘2023년 트레일서울 157K’는 올해는 서울시가 후원하여 기존과 달리 참가비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둘레길 완주 의지를 일으킬만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행사 참가 접수 후 서울둘레길 안내센터를 2023년 4월 5일부터 방문하는 사람에게 완주 응원 의미의 선물을 선착순으로 증정(타일 1,500명, 티셔츠 200명, 1인 1개 선 택, 증정)하는 선착순 참가자 이벤트 트레일서울 157K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이벤트 피드에 댓글로 서울둘레길에 함께가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고 사연을 쓰면 총 50명에게 선 물 증정하는 인스타그램 친구 소환 이벤트가 있다.

또한, 서울둘레길 스탬프함에서 촬영한 참여 인증영상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람 중 매일 10명 추천하여 티셔츠를 제공하는 숏폼(Short-form) 이벤트가 있는데 서울둘레길 스탬프



에 부착된 행사 큐알(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 또는 트레일코리아 인스타그램 이벤트란의 URL 접속하여, 큐알(QR)인식된 인스타그램 필터로 참여인증 영상을 촬영한 후에 필수 해시태그 #러너블 #트레일서울157K 와 함께 인스타그램 릴스에 게시하면 된다.

아울러, 2023년 4월 8일~5월 7일까지 서울둘레길 곳곳에서 엑스맨 또는 엑스걸이 등장하여 선물을 증정하는 게릴라성 행사인 엑스맨(X-man)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간 내 참가자가 28개의 스탬프를 서울둘레길 스탬프북에

모두 찍어오거나, 러너블앱에서 제공하는 GPX를 따라 걷기가 기록된 서울둘레길 완주자에게는 서울둘레길 안내센터(창포원, 매향시민의숲)에서 완주를 확인하고 완주인증서, 완주 리본과 함께 러너블 한정판 기념 리본을 제공한다.

서울둘레길을 걸을 때에는 코스별 이동시간, 당일 기상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안내지도, 식수, 간식거리, 보조 배터리 등 준비물을 챙기고, 걷기 전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미끄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트레킹화, 등산화 등 걷기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하고 이용 시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트레일서울 157K 누리집 또는 행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며 러너블앱 ‘마이페이지’ 1:1문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봄을 맞아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다양한 서울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서울둘레길 걷기는 건강과 좋은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며,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서울둘레길을 완주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수/기자

꿈·보람·감동으로 행복을 주는 중등교육 실현

-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상반기 중등 교장 연수 실시
- 임종식 교육감, “섬세하게 아이·교사들의 일상 챙길 것” 주문

경북교육청은 지난 28일(화)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덕계이호텔에서 2023학년도 상반기 중등 교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중·고·특수·각종 학교 교장 385명이 참석해 건국대 신병주 교수의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조선의 왕으로 산다는 것’ 특강을 비롯해 본청 각과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중등교육과는 올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관리자 장학 역량 강화 연수와 성취도 평가, 고교학점제 및 경제교육 관련 사업을 안내했으며, 감사관은 갑질 및 소극행정, 교육안전과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 등을 통해 학교 관리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청 및 교육부의 정책에 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도내 전체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관리자로서 더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

지고 코로나 이후 학교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시선으로 아이들과 교사들의 일상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市 자치구 최초! 영등포구, 찾아가는 전통시장 세무 상담 운영

시장 상인들의 세무 고민 해결하는 ‘찾아가는 전통시장 세무 상담’ 운영...자치구 처음

영등포구가 22일 영신상가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무 고충을 덜고 고민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전통시장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구는 평소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무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이번 상담을 마련했다.

구는 서울시 마을 세무사, 구청 징수와 직원과 함께 지난 22일 국제·지방세 공공증, 절세 방안, 권리구제 방법 등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서울시 협조를 받아 자치구 최초로 전통시장에 찾아가 세무 상담을 진행한 점에서 그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상담을 받은 많은 상인들은 그동안 상담료 부담으로 망설였던 세무 공공증을 해결하고 절세 방안도 알게 됐다며 큰 고마움을 전했다.

구는 추후 전통시장 외에도 노인 복지관 등에 찾아가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1:1 세무 상담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어르신 납세자가 납부금, 가산세, 납기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 또한 MZ세대를 비롯한 납세

자들이 지방세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의 QR 코드를 확대 표기하고 카카오톡 채널 ‘영등포구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박혀준 징수과장은 “바쁜 생업과 상담 비용 부담으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상담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이 복잡한 세무 법규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세무 상담을 확대하겠다”라며 “세납 정보 문자 발송과 큰 글씨 고지서 등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희신/기자

하윤수 교육감,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과 만난다

내달 1일 고등학생 대표협의회의와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나눌 예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월 1일 오전 9시 30분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부산지역 고등학생 대표 152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1학기 고등학생 대표협의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이 모여 학교의 학생 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는 ‘만나고 나누고 전하! 학생소통한마당’을 슬로건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한다.

오전엔 참가 학생들을 10개분임으로 나눠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인성 함양 방안’과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 소통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현진 동명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한

전문 퍼실리테이터 12명이 학생들의 토의·토론 활동을 지원한다. 오후엔 하윤수 교육감과 학생들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하 교육감은 ‘기초를 충실히! 미래의 꿈을 키우’는 희망 부산교육’을 주제로 인성 기반 학력 신장 등 2023 부산교육 정책에 대해 강의 한 후, 이어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교육 주제인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범규 시교육청 인성체육교육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학생들에게 학



교와 교육 현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며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경기도교육청, 공유학교 시범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지역교육협력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시범교육지원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통합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광주남양, 동두천양주, 시흥, 여주, 연천, 용인 총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24년 16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25년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면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력 향상 ▲글로벌 언어문화 ▲예술 ▲체육 ▲진로 ▲IT교육 분야 등의 다양한 주제의 공유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인근 교육지원청과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유학교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지역 전문가를 공유학교 컨설턴트로 위촉해 공유학교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5개 교육지원청은 ▲지역 실태 분석 ▲교육자원 지도 제작 ▲공유학교 추진 협의체 구축을 공동과제로 추진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은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공유학교 모델



개발 ▲공유학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유학교 통합시스템은 지역에 각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을 통합해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로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8일 오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업무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에서는 ▲공유학교 추진 방

향 ▲시범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모델 개발 계획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방향 공유 ▲현장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도교육청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민·관·학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공유학교를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맞손 잡다

광명시-경기도, 28일 새빛공원에서 '기후위기' 주제로 제6회 맞손토크 개최



광명시와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명시는 지난 28일 일직동 새빛공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맞손토크를 진행했다.

문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우수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최근 3년간 기후에너지 정책 관련 분야에서 환경부장관 표창 등 11건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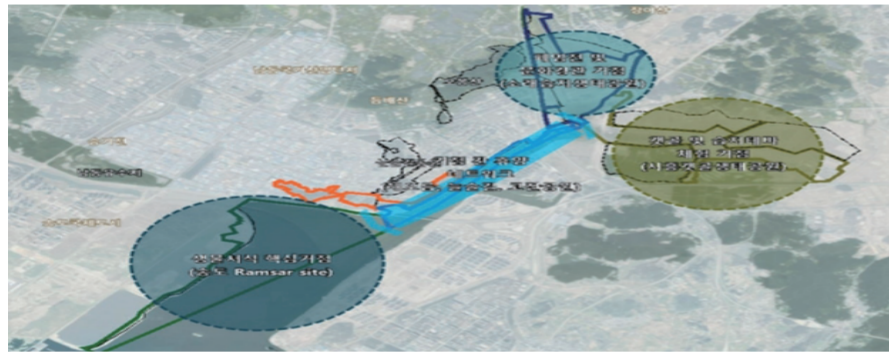
특히 기후의병은 기후 위기 대응 활동 분야에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이다. 기후의병은 의병정신을 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 1,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교육과정엔 탄소중립 교육 포함 ▲특목지 조성으로 도심숲 조성 ▲수소차 지원방안 등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맞손토크에는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인 방송인 줄리아안이 '우리가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로 기조연설을 해 주목 받았다.

윤용민/기자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한 전략 수립



인천광역시 소래습지 일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 사업들을 점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올해 7월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및 세부 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을 오는 8월 마무리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과 기본방향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소래 A, B공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토지주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속적 소통과 협의로 공원 조성 전까지 유연한 법 적용 등 토지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최도수 시 도시규형국장은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근대식 도시공원인 자유공원이 있는 도시로 130여 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이 인천에 참여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기도 했다. 또, 소래의 가치를 발굴하고 전국적 이슈화를 위해 조경설계가, 교수,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

김종남/기자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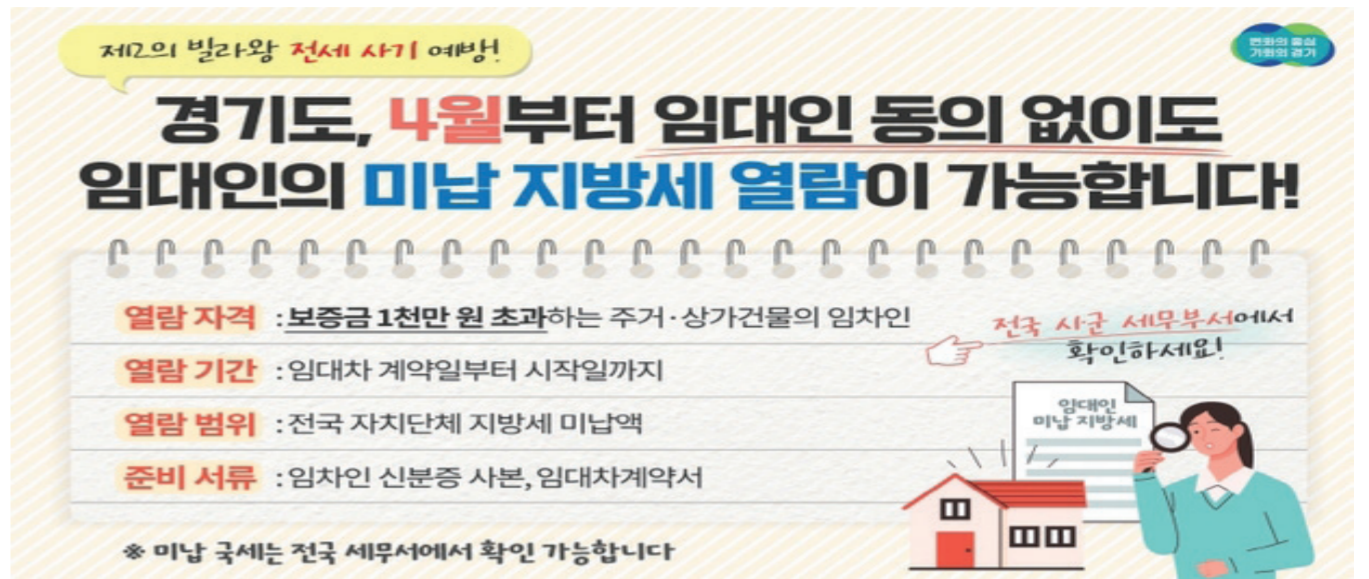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대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광동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

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용인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술로 소통하는 '아임버스커 (I'M BUSKER)'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 곳곳을 찾아가 시민과 함께 예술로 소통하는 문화예술 콘텐츠인 '아임버스커 (I'm Busker)'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2년 '용인거리아티스트'라는 사업명으로 시작해 12년간 이어져 온 용인문화재단의 대표사업인 '아임버스커'는 올해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거리공인 아티스트들이 용인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수준 높은 공연 제공을 위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아티스트 공개모집을 진행했고, 역대 최고 지원율로 올해 총 424팀이 신청했다.

1차 영상 평가와 2차 공개 오디션을 거쳐 음악(노래, 연주), 전통예술, 퍼포먼스, 댄스, 극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100팀의 아티스트들이 선발됐다.

아임버스커는 '정규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으로 운영되며, 용인 거리 곳곳에서 진행되는 '정규 공연'은 기존 20여 개에서 30여 개로 정규 공연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지역축제 등에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용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오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진행되는 '아임버스커 발대식&오리엔테이션'은 올해 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아티스트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특히 이날 봄맞이 특별행사 '모여라! 상상해 볼 놀이터'도 함께 진행돼 상상의숲 야외무대에서 기존 아임버스커 아티스트들의 공연 관람까지 함께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시흥시, 은계호수·오난산 벚꽃 구경하고 선물 받으세요

시흥시는 벚꽃 시즌을 맞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은계호수 및 오난산 일대에서 벚꽃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꽃피는 은계호수' 이벤트는 아름다운 호수와 어울리는 벚꽃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은계지구에서 펼쳐지는 누리소통망(SNS) 인증 이벤트다.

시민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은계호수 및 오난산에서 예쁜 벚꽃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해시태그(#은계호수, #오난산, #시흥시, #벚꽃)를 포함해 올린 후, 포스터의 QR코드에 접속해 자신이 게시한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 링크를 등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동네티콘)을 제공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1일이다.

은계지구는 오난산에 활짝 핀 벚꽃과 은계호수공원의 잔잔한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힐링산책 명소로, 매주 토요일에는 은계호수 버스킹 '컬러풀 윈터풀'이 개최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은계호수 일대를 방문해 벚꽃을 구경하고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기며 이벤트까지 참여해 소중한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우용/기자

김경일 파주시장,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건립 목표로 해외 선진시설 시찰 중

“기피 시설이 아닌 시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기피 시설’만들 것”

김경일 파주시장이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목표로 지난 22일부터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진행 중이다.

파주시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파주읍 봉암리 일원)으로 일일 처리용량 160톤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일 처리용량 7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파주시는 현재 현대화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우수 환경순환센터 방문 견학에 이어 현재 해외 선진시설을 시찰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프랑스 파리의 이케안 소각장, 덴마크 코펜하겐 로스킬레 소각장과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들 모두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상생하며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난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제안 소각장은 파리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46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에너지화시설이다. 연기 없는 소각장을 내세우며 외부에서 굴뚝이 보이지 않는 설계와 시설 부지의 약 80%를 녹지대로 조성하는 친환경적 디자인 등이 특징이다. 2007년 가동을 시작한 이제안 소각장은 꾸준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정보를 공개하며 소각시

설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한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덴마크의 로스킬레 소각장과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은 독특한 외관뿐만 아니라 지역 명소로 거듭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로스킬레 소각장은 8개 도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대 시설로서 국제 공모전을 통해 건축설계를 진행했다. 네덜란드의 유명 건축가인 에릭 반 에게라트의 디자인을 반영한 로스킬레 소각장은 로스킬레 대성당을 모티브로 외벽에 여러 개의 둥근 구멍을 뚫어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비추고 있어, 역사적 유산과 산업적 유산을 성공적으로 융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중심지에서 200m 반경에 위치한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은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유명하다. 이는 높이가 다른 건축물을 이어 붙여 시설 옥상에 슬로프를 조성한 결과이며,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은 스키장 외에도 암벽등반장, 등산로, 전망대, 카페 등 시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 관계자는 “코펜하겐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원칙하에 많은 자원과 자금을 투자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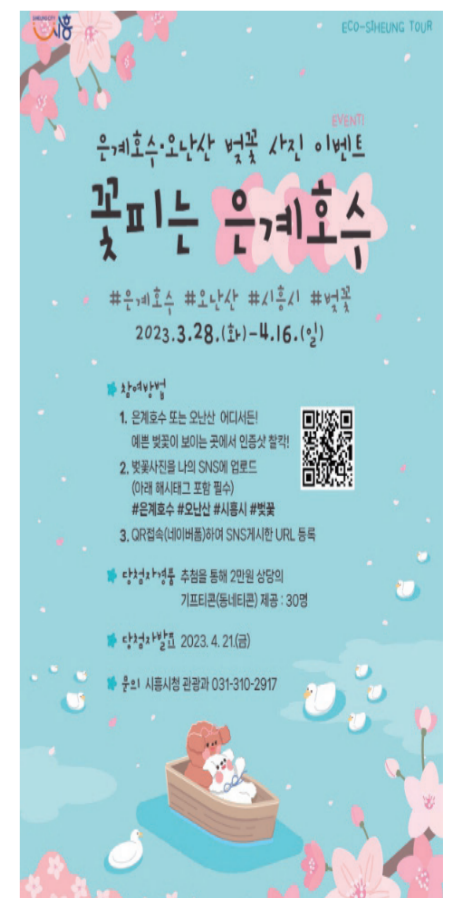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페나우 소각장, 슈퍼텔라우 소각장 등 오스트리아 우수 시설 방문 시찰을 끝으로 오는 30일 귀국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는 목표를 삼았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해외 선진시설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위해 파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며, “파주시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이 기존 기피 시설로의 인식과 한계를 넘어 시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기피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을 준비하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적극 살피겠다”고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페나우 소각장, 슈퍼텔라우 소각장 등 오스트리아 우수 시설 방문 시찰을 끝으로 오는 30일 귀국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영덕군노인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및 필수교육 실시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는 영덕군노인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자원봉사자 필수교육을 2023년3월27일 영덕군새마을지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열 군수님과 영덕군의회 손덕수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우보환 대한노인회사무부총장 겸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부장께서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주제로 특강도 있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원사업은 백세시대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경륜을 우리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영덕군 노인자원봉사단은 영덕대계 항공봉사단을 포함하여 총 7개단 140명으로 구성되어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 활동에 앞서 필수

교육은 안전교육 및 노인자원봉사자 역할, 소양, 윤리 등의 내용으로 실시했다.

영덕군노인자원봉사단은 지역 어르신 동호회 단체별로 특색을 살려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영덕군에서만 실시하는 발상공동체 운영 경로당에 어르신 식사 봉사 및 청결 지원 활동을 하고, 어르신+어린이가 함께하는 게이트 볼 및 한궁 놀이 봉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공터 및 쉼터에 소공원을 가꾸고, 각종 행사시 행사안내와 행사기록 사진촬영 등 시민기자 역할도 전담할 계획이다.

이번 영덕군 노인자원봉사단 발대식에 영덕군노인회 조철로회장은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활기 넘치고 보람찬 노인 자원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대전환 지방시대 선도!!

경북도-카카오엔터프라이즈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 인플루언서 발대식 개최

경북도는 지난 29일, 도청 화백당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경북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과 백상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참석해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시티 기술로 지역문제 공동 해결 등 디지털 대전환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뜻을 같이 모았다.

경북도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정 소통 플랫폼을 민관협력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구축하는 공공부문 표준화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 메신저의 표준화 모델 개발 ▲AI,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 발전 사업 발굴과

교육 등 상호 협력 ▲스마트시티 기술 공유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지적자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분야 홍보 콘텐츠 개발 ▲지방의 IT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 창출 등이며 후속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 후 디지털 경북 구현을 위해 도청 각 부서별 디지털 핵심 리더로 선발된 107명의 디지털 인플루언서 발대식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은 디지털 문화 경험이 많은 20~30대 직원을 위주로 선발돼, 조직 내 자유롭게 창의적인 디지털 문화를 확산하고 분야별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 등 새로운 지방시대, 디지털 경

북 구현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앞으로 디지털 인플루언서는 ①경북 4차 산업혁명 핵심리더 수행 ②행정 디지털 전환.스마트화 선도 ③「메타버스 수도 경북」프로젝트 지원 ④디지털플랫폼 정부 지식과 정보 전파 ⑤디지털 인플루언서 공동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디지털 전환 특강을 실시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우수사례 공유와 전파, 행정 각 분야별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등 디지털 핵심 리더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는 핵심이 될 것이다”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 및 디지털 인플루언서 발대식이 디지털 경북 혁신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

40명에게 월 30만원, 5개월간 지원

통영시는 장기불황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봉착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 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 및 생업을 보호하고,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통영시 청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지원인원은 40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포함)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사업자(소상공인) 중 영리사업자

이 면 서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으며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 통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을 확정할 수 있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7일

까지이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통영시청 1층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tytp@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인구청년정책팀(☎650-3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준기자



남해군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삼동면 갈현마을에서 추진...국비 포함 19억 확보

남해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삼동면 갈현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3억원 등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남해군은 2019년 1개소(평산2마을), 2020년 1개소(우물마을), 2021년 2개소(노구마을, 옥천마을), 2022년 1개소(남상마을) 등 기존 5개 지구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남해군은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로 갈현마을의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된 삼동면 갈현마을은 "농사걱정, 사고걱정 없이 1년 365일 안심하고 사는 갈현마을"이란 사업비전을 내세우며 주민의 삶이 더 나은 마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

남해군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2026년까지 하천안전 보강, 도로안전 확보, 소방안전 확보,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래식화장실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건강교실, 주민리더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재현 경제과장은 "갈현마을 사업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실 공사를 적기에 착공하여 지역민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면 서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으며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 통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을 확정할 수 있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7일

이용준기자

엑스포 드림원정대, 전 국민 유치 염원 담은 전국 투어 시작

- 전국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한 곳에! 위시트리 심고 전국 달린다

- 지난 29일 09시, 시청 시민광장에서 출정식 개최



부산시는 전 국민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은 '엑스포 드림원정대'가 지난 29일(수)부터 전국 투어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 시청 시민광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재호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장, 박은하 범시민유치위 집행위원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은 ▲엑스포 드림원정대 운영계획 보고 ▲기념·응원·기원사 ▲위시트리 부착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특히 '엑스포 드림원정대'를 위해 특별 제작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트럭이 출정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맞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유치 열

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엑스포 드림원정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엑스포 드림원정대는 영상·음향 시설을 갖춘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트럭을 이용, 전국 주요 도시를 찾아가 다양한 유치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는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맞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전 국민의 유치 염원을 모으고, 유치 열기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돼, 지난 29일부터 4월 6일까지 대구(3.29), 서울(3.30), 순천(3.31), 광주(4.1), 대전(4.2), 서울(4.3), 부산(4.4-4.6) 순으로 도시별 주요지점을 방문하며, 일부 방문

지에서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맞이 행사에도 찾아갈 예정이다.

참고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OX퀴즈 ▲엑스포 응원송 플래시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위시트리 만들기 ▲부산 대표 커피 모모스커피 웨이팅 등이 있다. 특히, 유치기원 위시트리 만들기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아 작성한 문구를 홍보 트럭에 있는 '소원(So One) 트리'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 투어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전 국민의 유치 염원을 한곳에 모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송종진기자

울진군,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공기원 '우리 동네 반짝반짝 캠페인' 실시

울진군은 지난 27일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공 기원 '우리 동네 반짝반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요 경기가 펼쳐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진행됐으며, 지난 24일 죽변면에서 80여 명을 시작으로, 27일 울진읍 일대에서 자원봉사단체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개인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울진읍의 참여자들은 울진군민체육관 입구에서 울진군청을 지나 연호공원 구간까지 거리 행진과 환경정화 활동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앞장섰으며, 오는 31일까지 후포면, 북면, 평해읍, 근남면 순으로 캠페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태운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획한 이번 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자원봉사자와 함께 단합된 힘으로 우리

군을 찾는 선수단과 도민분들께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도민체전의 자원봉사자들이 화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민체육대회를 향한 군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울진군에 방문하는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숨 울진의 이미지가 더욱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복사꽃길과 걸어간다
제9회 경산 복사꽃길 걷기 행사

with 제2회 반곡지 사랑 가요제
주최:주관:대한국가수업회(위원장:박영관)

2023. 4. 8 (토) 10:00 - 15:30
반곡지 주차장 (영천시 반곡지 210-1)

행사내용

- 복사꽃길 걷기
- 공연 및 이벤트
- 제정활동

주최:영남시 / 후원: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축제 추진위원회
후원:경산문화재단/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수업회 / 신시명경연위원회 / 남산대학교

노란 산수유 꽃물결 출렁이는 봉화 띠띠미마을로 나들이 오세요

따스한 봄기운에 전국 곳곳의 산수유가 꽃망울을 활짝 펴고 있는데 경북 최고의 이곳 봉화 띠띠미마을의 산수유도 노란 자태를 뽐내며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봉화 띠띠미마을은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부터 산수유 꽃이 노란물결을 이루며 반겨준다. 조상 대대로 재배하던 수령 100년이 넘는 산수유나무들이 고즈넉한 고택들과 조화를 이루며 마을 전체가 온통 노란 물감을 뿌려 놓은 듯 장관을 이루고 있다.

띠띠미마을의 산수유는 병자호란 때 두곡 홍우정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문수산 자락 깊은 이 마을로 피란하면서 산수유나무를 심은 것이 시초이다. 400년 된 시조목 두 그루가 아직도 꽃을 피우며 사람 사는 마을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특히 띠띠미마을은 올해 경북관광공사가 선정한 경북 19 관광지 23선에 포함돼 코로나19 이후 마스크의 방해 없이 살랑 부는 봄바람을 맞으면서 산수유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

기 위한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곳 마을 담벼락에는 봉화 문인협회 회원들의 시가 전시되어 있어 이 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전시된 시를 감상해 보면서 한적한 띠띠미마을 길을 걸어 보는 것도 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매년 4월 초에는 산수유 개화 시기에 맞춰 '산수유 신춘 시 낭송회'도 열린다. 올해는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와 음악과 봄꽃향기'를 주제로 시낭송과 더불어 성악공연이 펼쳐진다.

특별한 꽃구경을 하고 싶다면 띠띠미마을을 찾아 꽃향기만큼이나 감미로운 시와 음악을 통해 산수유를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봉화 띠띠미마을 관계자는 "이곳 띠띠미 마을로 찾아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정겨운 마음으로 관광객들이 결코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광객들을 맞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띠띠미 마을 산수유

경북 청년창업기업 마주(maju), 버섯스넥으로 K-푸드 선도기업 성장

- 2019년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창업, 2021년 제품 출시 5개월 만에 4개국 수출 성과
- 오일프리 버섯스넥 식품기술대상 동상 수상, 오사카 국제식품산업대전 출품 쾌거

도시청년이 농촌에 내려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가 추진한 '도시청년시골' 파견제 사업이 청년 창업기업들의 성과로 이어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경상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창업한 청년기업 '마주(maju)'는 친환경 먹거리와 지역상생 우수기업, K-푸드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송이버섯을 얇게 잘라 건조한 제품을 만드는 마주는 2020년 김천시 봉산면에 100m(30평) 규모의 생산 시설을 짓고, 같은 해 9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취득, 2021년 10월부터 제품을 시장에 선보여 2021년 2천만원, 2022년 4천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1억원 이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인증(무농약)과 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을 받은 세송이버섯으로 만든 제품인 '버섯스넥 바삭 오리 지닐'(VASAC CRISPY ORIGINAL)'은 기존 유통처리한 칩과 달리 오일

프리공법을 통해 유사품목 대비 칼로리를 최대 5배가량 낮은 제품으로 자 극적이지 않아 인기가 높다.

밀 대신 쌀을 첨가, 글루텐 프리가 주는 자유로움과 세송이버섯 원물 약 200g이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을 함유해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돕고, 기름을 전혀 쓰지 않고 바삭하게 만들 수 있는 고유 기술을 적용해 포화 지방, 트랜스지방에서 자유롭고 유지가 산패될 요인도 없다는 게 특징으로, 여기에 양파분말을 로스팅해 천연의 단맛과 더불어 깊은 풍미를 더한 제품으로 원재료 모두 채식기반의 비건을 위한 제품이다. 환경을 생각해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특수종이로 포장재를 제작해 쉽게 재활용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런 마주의 뛰어난 기술력은 국내외에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 식품연구원 이 개최한 '2021년 식품기술대상 시상식'에서 동상 수상, 오사카 국제식품산업 대전(JFEX2021)에 출품하는 쾌거를 달성했고, 2021년에는 도쿄

마루이 백화점과 라옥스 면세점 수출 계약 체결, 캄보디아 주한대사관 답례품 수출, 미국 김씨마켓 (Kim'C Market) 및 캐나다 H-Mart에 입점하는 등 제품 출시 5개월 만에 4개국에 진출하는 성과도 냈다.

지난해 미국 아마존 셀러 달랑하리/국내 마켓컬리 입점,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버섯포 (저키) 기술제휴 협약 체결, 한국식품연구원 및 원광대와 대량생산화, 사회협동조합 플라토피아와 협약 체결 등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요는 날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버섯포 저키와 국내 고추장을 기본으로 깨와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든 한국형 테이블소스인 '깨칩'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세송이버섯을 구매해 이웃과의 협력과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장효현 마주 대표는 "회사이름 '마주'는 '지역과 환경 그리고 소비자'와 '마주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책



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제품을 개발한 청년 창업기업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판로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홍보영상 제작과 온라인 판매플랫폼 입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서비스 실시

-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실시
- '1973년 ~ 2022년 항공사진' 시계열 도시공간정보 시민 누구나 활용(무상)

대구시는 1973년부터 대구시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항공사진을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항공사진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

대구시에서는 최신기술과 공간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추세에 맞춰 공공 및 민간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공유체계(API)분야에 항공사진 성과를 적용한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서비스 구축 용역 사업을 완료하고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서비스는 내부 직원만 활용하던 기존의 항공사진관리 및 판독시스템을 최신기술의 오픈소스 기반으로 고도화해 대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활용한 영상 기반의 콘텐츠 연계, 시계열 영상정보 구축 등으로 각종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항

공사지의 온라인(비대면)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직접 방문신청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환경을 마련했다.

누구나 PC를 통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내 항공사진 통합플랫폼(https://airmap.daegu.go.kr)에 접속하면 1973년부터 최근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을 쉽게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주소를 검색(지번, 도로명, 장소명)해 필요로 하는 항공사진을 저장하거나 출력해 보상, 세무, 소송 등 각종 민원 관련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최신 웹 개발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연계를 통한 고품질 공간정보를 시정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시계열 영상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간정보의 행정업무 편의성과 도시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주왕산면 신점1리지구 국비 등 21억원 확보
- 윤경희 군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또다시 최종 선정돼, 사업비 21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정주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올해 1월에 경북도, 3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식품부의 사업평가를 거쳐 23년 신규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3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신점1리는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80%,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경관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조성 뿐만 아니라 신점1리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소카페 청송군' 청정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송군은 지난 3월 16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덕리지구

2023년 농촌공간정비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80억(국·도비 11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신점1리 주민들과 합심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된

윤근수/기자

제2회 주민참여 봉화군 군정자문위원회 회의

-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져
- 박현국 군수, "위원님들 의견이 문제 해결 실마리, 아낌없는 조언 부탁"해



봉화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현국 군수와 홍연용 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주민참여 봉화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분과 및 분과위원 확정,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자문안건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용, 봉화 베트남마을 조성사업 등 5건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역개발 분과, 문화관광 분과, 행정·보건복지 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자 의견을 모았고, 각 분과별 분과장을 중심으로 분야별 군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자문해 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뜻을 함께했다.

홍연용 봉화군 정책자문위원장은 "지역의 고유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안이 경쟁력이 있다"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만이 가진 특색있는 정

책발굴과 자문으로 지방소멸 위기라는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고장 봉화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며, 우리 군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며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봉화군,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서

인천시, 불법튜닝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한 92건 적발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단속...부정유통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교통안전문화 개선과 사고 발생 감소 기대

봉화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봉화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경찰서 수사팀을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봉화군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조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며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이 부정유통 사례 근절과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인천대교, 인천항, 고잔테크노밸리 등 인천의 주요 지역에서 시, 군·구를 비롯한 관할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번호판 훼손 5대,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63대, 불법구조변경 16대, 무단방치의심차량 8대 등 총 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정비 및 검사 명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인천시의 교통안전 문화가 개선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되는 것을 물론, 불법자동차 위험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 조성과 불법자동차 예방을 위해 지속

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오는 5월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시흥시, 봄철 야생동물 출몰 주의 당부...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야생동물의 도심 지역 출몰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야생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야생동물의 주요 출몰지역인 신현동, 매화동, 물왕동 등 관내 14개 지역에 주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봄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집중 운영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봄철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 출몰 지역 파악 △동물과의 거리 유지 △긴팔, 긴 바지 착용 △향수 사용 자제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지 않기 △동물에게 빛, 소음 등 스트레스 주지 않기 등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봄철 야생동물 출몰 빈도가 높은 포동, 하중동, 장곡동 일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오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흥시와 시흥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시흥시지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



용은 총기, 울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우용/기자

가 적발되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우용/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2023년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은 중고차 미끼매물 등 허위광고 및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3월 27일부터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산서구 내의 자동차 매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반을 꾸려 중고차 허위매물을 중심으로 미끼매물, 허위광고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고차 허위매물의 경우 법령 미숙지와 무관하게 악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법령 위반 시 제발 방지와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도나 경고 없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며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즉각 경찰서로 고발할 예정이다.

중고차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자동차365’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차량 유무, 정보 진위

여부, 중고차 시세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차량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중고차 허위매물은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에 반대된다.”며 “사기 피해 예방과 더불어 고질적인 불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경남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기획단속 돌입

27일부터 5월 12일까지...식품유통담당부서, 시군, 도 교육청 합동 점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3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식품유통담당부서와 도 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참여하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환경조성을 위해 도내 750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최근 식재료 가격상승 등 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반해, 급식 식재료의 공급단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소비(유통)기한 변조

및 원산지 둔갑 등 원가 절감을 위한 불량 식재료 유통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도 특사경은 단속기간을 나누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는 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현장에서 제기되는 저품질 식재료 납품 등 위장심과 불성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업체 등록지에서의 작업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도 식품유통담당부서와 합동으로 ▲무신고 및 신고영역 외 영업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

저품질 식재료 공급 ▲냉장·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는 도내 수많은 학생과 도민이 식사하는 시설로, 불량 식재료 유통 등에 따른 위해 발생 시에는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재현/기자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산시 단원구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행위가 농촌지역과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실시된다.

구는 대부도지역의 신축건물 공사현장, 논·밭두렁 등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석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석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청송의 맛'





청송의 자연은 순수합니다.
 농부들은 그곳에 '땀과 정성'을 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청송사과,
 태양과 바람이 키우는 신토불이 청송고추,
 청송농산물의 새로운 다크호스, 청송자두...

산소카페 청송군이 빛어낸 '청송의 맛'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고향 나주에 전하는 온정 눈길

2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이어 답례품 재차 기부

전라남도 나주가 고향인 배드민턴 간판스타 안세영 선수가 또 한 번 고향사랑을 전해와 훈훈함을 자아낸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는 지난달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500만원) 기부에 이어 최근 150만원 상당 답례품을 재차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금 총액의 30%이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나주시 답례품은 배, 멜론, 잡곡, 쌀, 천연염색제품, 나주사랑상품권, 나주소평물 마일리지, 나주목사내아 숙박권 등 총 8종이다.

안 선수는 답례품 중 나주사랑상품권(150만원)을 선택해 “어려운 고향분들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부친인 안정현 씨를 통해 상품권을 이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재차 기탁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인 안세영 선수는 올해 대한민국을 넘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이자 배드민턴 여제로 발돋움했다.

안 선수는 지난 1월 3주간 3차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말레이시아-인도-인도네시아)에 모두 결승전에 올라 우승 2회, 준우승 1회를 차지하며 2주 연속 대회 정상에 등극



▲배드민턴 국가대표 나주 출신 안세영 선수가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왼쪽 사진)한데 이어 최근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원 상당 나주사랑상품권을 나주시 이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오른쪽 사진)했다.

하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이어 배드민턴의 임블던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 역사와 권위의 ‘2023년 전영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단식 정상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전영오픈 여자 단식 금메달은 1996년 이후 27년 만이다.

안 선수는 지난달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나주에서 보냈다”며 “힘이 들 때면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언젠가 나도 별처럼 빛날 수 있길 바랐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나삼군 이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로서 고향 나주와 이창동을 빛내준 안세영 선수의 투지와 열정,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경산시, 하양 명예읍장 이영일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기부

현 명예읍장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새겨지다!

경산시는 28일 현 하양읍 명예읍장인 이영일 대표가 경산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영일 대표는 하양 출신으로 현재 협동조합 화산별의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제4대 하양 명예읍장직을 맡아 고향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고향 사랑의 마음을 또 한 번 전했다.

한편, 이영일 명예읍장이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 화산별은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있는 화산 산자락의 해발 700m에 자리 잡고 있는 주민 4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으로, 무농약 배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마다 김장 체험 등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영일 대표는 “경산을 떠나서도 내 고향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언젠가는 고향을 위해 할 역할이 있을 거로 생각했고, 작년 명예읍장직을 맡고 올해 이렇게 뜻깊은 기부까지 할 수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한 내 역할에 고심하겠다”며 500만원의 기부금을 전



경산시장 조원일(왼쪽)은 이영일 명예읍장(가운데)에게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달했다. 조원일 경산시장은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다는 명예읍장님의 말은 경산을 사랑하는 많은 출향인들의 마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며 “기부금을 통해 고향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신 명예읍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경산을 위한 소중한 마음을 담아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고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고,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부자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다.

송광삼/기자

인천시 서구 검단체육회, ‘검단주민의 날’ 기념 ‘주민상’ 22명 선정

내달 1일에는 드림파크서 ‘주민화합체육대회’ 5년 만에 개최

인천 서구는 검단체육회가 오는 4월 1일 ‘제30회 검단주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주민과 관공서 직원 등 22명을 ‘주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단체육회는 효행, 사회봉사, 체육공로, 주민화합, 친절봉사, 장수부문, 농업인, 기업인 등 8개 분야에 대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로는 ▲주민화합 부문 조숙이 씨, ▲체육공로 부문 김성규 씨, ▲효행 부문 김희옥 씨, ▲사회봉사 부문 조정근 씨, ▲농업인 부문 신상철, 권병옥 씨, ▲기업인 부문 심영수 씨, ▲친절봉사 부문 채서연, 송지은, 모인경, 이용노, 정윤모, 송승연, 유선옥, 박나운, 김찬호, 서창환, 백경호, 변지훈, 이정환, 임동원 씨가 ▲장수부문에는 황복후(여, 100세) 씨 등이다.

이들 수상자는 오는 4월 1일 드림파크 주민체육공원에서 열리는 ‘검단주민의 날’ 기념 주민화합체육대회에서 주민상을 받게 된다.

아울러 검단체육회는 “코로나 등으로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주민화합체육대회가 모처럼 다시 열린다”며 “검



단지역 7개 동 선수들이 6개 종목에 민화합체육대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환 회장은 “5년 만에 열리는 주

김종남/기자

북통영남시물류 이웃돕기 백미 10KG 200포 기탁

통영시 지난 3월 28일 북통영남시물류에서 개업을 기념하여 관내 저소득층 이웃돕기 백미(10kg) 200포(6,000,000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오픈한 북통영남시물류는 통영시 광도면 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시업소나 전국의 많은 남시인들을 위해 다양한 남시용품공급하는 전문 도매업체이다.

고량주 대표는 “약 한달 전 경기도에서 살기 좋은 통영으로 이사하면서 남시전문매장을 개업하여 한번 쓰고 버려지는 화환 대신 활화환을 받아 기부하게 됐다”며 “개업축하로 받은 쌀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소중한 의미를 담은 쌀을 기탁해 주신 북통영남시물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민



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백미는 관내 복지

이용준/기자

충남도청 여자 테니스팀 창단

도, 도청 운동경기부 여자 테니스팀 창단식 개최...“도민 자긍심 높일 것”



충남도가 도내 우수 여자테니스 선수의 타 시도 이탈 방지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도청 운동경기부 여자 테니스팀’을 창단했다.

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진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청 운동경기부 단장과 심우성 도체육회 사무처장, 최재운 도 테니스협회 회장 및 선수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자 테니스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랫동안 천안중앙고에서 지도자를 맡은 고성진 감독

이 팀을 이끈다. 선수는 세종시청 소속이었던 임은지 선수를 비롯해 김예진, 장아영, 신주에 선수로, 지난 1월 1일자로 입단했다.

이들은 입단 후 2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강화훈련을 시작해 같은 달 전국대회인 2023 오동도배 여수 오픈테니스대회에서 여자복식 3위의 성적을 거뒀다.

도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 도내에 국제규격의 테니스장을 건설 계획으로, 충남을 테니

스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진호 단장은 “도청 여자 테니스팀은 앞으로 충남의 위상을 드높이고 도민과도 재능기부 등을 통해 소통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청 직장은운동경기부는 근대 5종(혼성), 육상(혼성), 레슬링(혼성) 팀, 마라톤(남, 여), 핸드볼(남), 테니스(여) 7종목 8개 팀 77명이다.

최정근/기자

(주)이엠케이파트너스 김동우 대표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동참!

형성 출신, 원주 소재 전시모형 회사 대표 도 본청에 300만원 기탁

강원도는 원주에 본사가 위치한 전시모형 회사 (주)이엠케이파트너스의 김동우 대표가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동참하고, 도 본청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이엠케이파트너스는 전시모형 업계에서는 탄탄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종합 디자인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강원도 형성 출생인 김동우 대표는 “강원지역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하며 “기부금이 고향 주민들을 위해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 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김동우 대표의



마음과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시행 3개월을 맞은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